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 필요성과 방향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통합과정: 양정아

서론

현대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제화 현상이다. 2차 대전 이후 증가하게 된 국제 시장 노동 인구의 이동은 이후 점차 확대 되어서 노동 이외에도 교육과 삶의 질 등등의 이유로 국제적 인구 이동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인구 이동은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의 고등 교육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갖추려는 욕구가 강화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선진국의 발달된 학문을 습득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가지려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2,31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2013년 85,923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는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인 Study Korea Project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은 인재가 유학을 가던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서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작된 이 계획은 2010년까지 5만 명의 외국인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나 목표는 초과 달성되어 2010년 8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김선태, 2007)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고등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가 되고자 한국으로의 유학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에 진입했으며, 더불어 증가하는 탈북자(새터민)들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등 교육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고등 교육의 진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런 현상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고등 교육에서 이들의 수를 더욱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정적 조치에 비해 한국 대학 교육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나 배려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 배려 없이 시작된 행정적 조치들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Study Korean의 시작은 1월 무역 외 수지를 위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불만을 촉발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탈북자들은 특례 입학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이 중도 탈락하고 있다.(중대신문,

2010)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및 부적응에 대해서 대학들은 멘토링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적응은 대학 교육을 대하는 대부분의 시각과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던 한국인들에게 대학과 학문은 관직 혹은 좋은 직업 및 자리를 제공하는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대학 진학률은 68.7%에 육박하고 있고, 중요한 관문인 대학 입시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e나라지표, 2013) 게다가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 이후 깊게 형성된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는 고등 교육의 성공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왜 대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수용해야 하나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각종 장학금 혜택과 특혜로 인해서 대학에 주는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대학 교육의 개혁 및 질적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대학의 공공성의 문제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공공적인 책임으로 지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감당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학은 국가를 지탱하고 민족을 이끄는 지성으로서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굳이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대학의 변화는 공공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셋째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의 문제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유교 철학의 영향으로 한국인들 대부분은 학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하고 좋은 일 자리를 담보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대학은 단순히 학문연구의 기관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속에 대학의 문을 개방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학에 편입시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빼앗기는 일이 된다. 왜 우리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지위와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부딪치게 되면 우리는 현재 대학의 상태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대학의 이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학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성의 공간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며 우리나라의 자녀를 키워 그

들을 인재로 양성시키는 곳으로서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대학은 경제적인 이유로 휘둘리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유입이 대학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학은 나라를 이끄는 지성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인재 양성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대학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의 유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앞서 계속 언급되었지만 그들은 대학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해 주는 자원의 기능을 감당해 줄 수 없다. 그들은 엄청난 학비를 내며 한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들은 소위 세계 탑 순위를 자랑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한국 대학은 경제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진학해야 하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곳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현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책이다. 대학의 경제적 문제는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공공성의 이유와 맞닿아 있다. 대학은 공공의 지적인 담론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은 현재 보다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와 세계 전체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 전체, 세계 전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변방의 국가로 우리 자신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그럴 수 없다. 세계인들은 한국 사회가 발전된 만큼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한류 등의 현상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OECD 가입과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세계 협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는 국민 국가를 넘어서 초국가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NGO 들의 출현하고 있으며, E.U, NAFTA 등의 초국가적 형태의 기관들이 출범하고 있다. 이들은 더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민 국가의 형태만으로는 세계의 흐름에서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공공 지성의 공간으로서 대학이 더 이상 한 가지 문화적 배경만을 가르칠 수 없으며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이 사회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은 다문화적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교육은 책이나 간접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세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활동하고 일해야 하는 곳은 한국이라는 작은 사회가 아니다.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들은 다국적 기업과 기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문화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해 나가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상사로 두고 혹은 부하로 두고 팀을 꾸리며 활동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접하며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이라는 환경은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해외진출이 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교육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무지는 해외에서 많은 실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진실로 수용하며 작업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이다. 다른 어떤 기관 보다 대학은 지성의 담론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세계에 진출한 한국의 인재를 키워 내는 곳으로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고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학의 교육 이념과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 교육의 담론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이 될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I. 대학의 교육 이념

올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의 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수립과 대학 진학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 이 계획을 시행했다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구조 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2회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원 감축이나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고등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교육부가 개혁을 위해 근거로 들고 있는 교육적 현상에 앞서 대학의 본

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나 하는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현상과 다른 반대의 주장들을 맞이하게 된다. 교육부의 개혁에 반대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개혁이 대학의 질 개선을 방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대학이 이 사회에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대학 교육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합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근대 대학 설립의 모델로서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후 근대 대학 설립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베를린 대학.¹⁾을 살펴보고자 한다.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러시아의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Friedrich Wilhelm III)는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그는 프로이센에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 위주의 통계적인 사회 비전을 가진 중산층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황제는 새로운 대학의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 계획을 위해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울프 (Friedrich August Wolf), 피히테 (Fichte), 그리고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현실화는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가 맡게 되었다. (Mike Higton, 2012, pp.46-47)

슈라이어마허를 비롯한 학자들과 훔볼트는 이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Bildung과 Wissenschaft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Bildung은 영어로는 education 혹은 foundation으로 번역되는 개념인데, 독일 철학자들은 사람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규범으로 Bildung을 사용하고 있다. 훔볼트는 이 Bildung의 과정을 정신과 감성의 정원의 가꾸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훔볼트에게 Bildung은 합리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Wissenschaft는 영어로 과학 혹은 학문이라고 번역되는 언어인데 독일에서는 연구와 가르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훔볼트는 교육(Bildung)을 통해 학문(Wissenschaft)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훔볼트에게 교육과 학문은 하나이며 진정한 교육은 연구를 동반한 학문의 확장과 그것을 배움으로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 바로 베를린 대학의 독특성을 설명해 주는데 이전의 중세 대학과 달리 베

1) 베를린 대학의 설립 이념을 대학 고유의 이념으로 전제한 것은 베를린 대학이 세속화된 대학의 시작점이며 연구 중심 대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세미나들은 이런 베를린 대학의 모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의 대학들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 그 이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파편화되어지고 분절화 되었다. (Mike Higton, 2012)

를린 대학의 설립자들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연구 및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배움을 통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베를린 대학 창립자들의 생각이었다.

이 개념을 기독교 전통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자가 피히테이다. 피히테는 대학은 고립된 곳에서 연구한다는 면에서 수도원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문의 존재는 수도원이 진리를 탐구하고 수행하듯 인간의 가난한 마음에 해방을 주며 경건함으로 이끌어 준다. 대학은 참다운 학문의 구성을 통해 신이 만드신 세계의 총체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Mike Higton, 2012, pp. 47-54)

그렇다면 학문에서의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실질적인 학문 연구의 실현을 위해서 베를린 대학의 창립자들은 합리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신이 만드신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며 성숙을 지향하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해야 하며 그들 간의 상호소통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Mike Higton, 2012, pp. 54-60)

정리해 보면 베를린 대학의 창립자들은 신이 만드신 총체적인 세계²⁾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실한 교육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대학이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신의 관점으로 신이 만드신 세계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소통을 통해 참다운 학문이 이루어진다. 술라이어마허는 대학 공동체의 형성을 주장하면서 상호 소통은 지식을 얻는 모든 노력을 다스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Mike Higton, 2012)

베를린 대학은 대학이란 총체적 세계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며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고 진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의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특히 베를린 대학이 이루어낸 학문적 업적과 프로이센의 발전은 건강한 대학 이념을 가진 대학의 설립과 운영이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를린 대학을 건강한 근대 대학의 모델로 전제하고 대학의 이념은 신이 만드신 총체적 세계에 대한 탐구 및 교육이 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

2) 총체적 세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총체적 세계의 실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 속에 의식화된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런 식의 최근 흐름을 따르지 않고, 베를린 대학의 창립자들과 이후 옥스퍼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존 헨리 뉴먼이 언급한 총체적 세계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존 헨리 뉴먼에게 총체적 세계란 신이 만드신 세계를 이야기 하며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 세계를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양한 학문 분과는 이런 총체적 세계를 구성하는 분과들이며 신학은 그러한 학문들의 분과 중에 하나이자 총체적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이 되는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도록 하겠다.

II. 다문화 교육의 철학적 배경

서구에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담론은 30~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쏟아지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 담론을 시작하였다. 초기 다문화주의 담론은 동화주의로서 이민자들을 기존 사회 문화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자들은 기존 사회에 동화되기보다 사회의 주변부에 존재하면서 기존 사회 질서에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담론들이 시작되었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영역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부터 공동체 주의적 다문화주의까지 다문화주의 담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 형태의 담론을 가로 질러서 이 담론들의 핵심을 살펴보면 인권향상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매우 크게 거론되게 되었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 담론에 맞추어서 다문화 주의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다문화 교육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특히 영미권에서 다문화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마틴 루터 킹이 주도한 흑인 인권운동으로서 다양한 민족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이 시작되게 되었다. (James banks, 1993)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은 차별받는 소수민족들의 인권의 보장하기 위한 교육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 혹은 소수 민족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나면 결국 다문화 교육은 차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민족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이미 차이와 차별이 전제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결국 차이와 차별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소수자, 혹은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다문화 교육학자 James Banks는 “다문화 교육은 교육철학이자, 교육 개혁 운동으로 교육 기관의 구조를 바꾸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hristine Bennet은 “다문화 교육은 평등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혁을 통하여 주류 집단과 소수집단의 모든 사람이 다문화적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교육학자들은 다문화 교육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문화의 공존에 대한 이해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James banks, 2008; Christine bennet,2009)

다문화 교육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은 소수 민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다문화 교육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며 모든 학생을 대

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정책적이고 처방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변화이며 교육 목표 및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철학이며 동시에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의 설립 이념으로 공인된 세계를 탐구하는 지성을 기른다는 대학의 이념에 적합한 교육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때 지성은 편협 되지 않고 더 합당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 철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 담론 중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자유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의 철학적 담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한다. 귀족과 민중을 구분했던 원칙들은 붕괴되어지고 민주적 인간상이 등장하게 된다. 민주적 인간상은 “계급에서 벗어나서 동일한 개개인은 모두 같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계급을 불러 일으켰던 차이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경험된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차이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규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 개개인은 모두 평등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주체는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데 19세기 초 헤겔은 이 부분을 ‘주인과 하인의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주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관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 형성을 위해 타인 혹은 사회와 가지는 관계를 핵심으로 전제한다. 근대적인 체계 속에서 타자는 동일자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한 주체이기 때문에 타자는 동일자로 출발한다. 이 개념 속에서는 이타성이 감소되고 유사성이 증진된다. 문화, 인종, 종교들은 비본질적이며 인류의 동질성은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개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차이는 무시되어야 한다. 만약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연대와 공평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할 때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차이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들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복잡해진 타인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개념이 된다. 단순화한 이 개념들은 불평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보편성의 확신은 차이를 희생시켜서 얻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인정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에는 인정이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밝혀낸다. 인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필요라고 이야기 한다. 인정이 거부되게 되면 정체성이 거부된 사람들의 비가시성 형태를 만들어 내며 잘못된 인식을 창조해 낸다. 이 잘못된 인식은 정체성에 대한 병리적 현상을 가지게 만든다. 잘못된 인식은 구성원들에게 타인에 대한 열등한 이미지를 내면화 시키며 근대가 창조한 민주적 인간상

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의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인정의 정치는 보편주의에 기반 하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권리와 특권정체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개인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것은 개인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보편적인 생각에 대한 동의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현대 정치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런 개념을 확장한다. 일단 참여를 위한 인정의 정책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소수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확대 시켜 나가려고 논증한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 권리를 보존하고 동시에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보존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다보면 이것은 실효적으로는 개인이 가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를 보존한다고 정의해 보면 개인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러한 권리 이양이 개인의 선택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제하더라도 개인 대다수가 언어와 같은 문화적 특질을 존속하고자 하고 그것을 사회전체에 적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단화된 그들은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집단을 균질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또 다른 편향된 다양한 문화주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이슬람 소수자들이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균질화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월 킴리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단 개인이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은 인종이나 혈연, 민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집단에 속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인종주의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문화적 요구의 종류가 무엇이던 간에 민족문화집단들 내부의 정의도 외부의 정의만큼 중요하다고 전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집단 내부에서의 불의함도 문화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 킴리카는 서구 외에 지역에서의 비자유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소수문화가 더 가부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는 한 문화집단에서 나온 모든 요구가 본질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으며 민족적 집단보다 국가적 집단이 더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집단 내부의 보호 장치와 동시에 외부에서의 집단 보호 장치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소수집단의 제례와 같은 법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trick Savidan, 2009)

이상의 월 킴리카의 주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소수 집단은 문화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기는 쉽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

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히잡 사태의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공화주의적인 보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중립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소수 집단인 이슬람은 히잡을 쓰고 학교에 등교하는 사태를 일으키며 중립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그들의 문화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립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사적인 영역과 소수의 문화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서 교육의 영역이 사적인 영역인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문화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교육적으로 쉽게 해결되며 보편적인 규칙과 부딪치지 않는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도 교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유럽국가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정의와 부딪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에서 어떤 식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대학 다문화 교육의 이념 또는 방향 - 상호 문화주의적인 교육

자유 다문화주의의 한계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개인의 자유의 확대와 소수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집단에 들어가고 집단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유지한다는 윌 킴리카의 주장은 이상적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확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양 혹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아시아와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 보다는 태어난 가정으로 인해서 집단을 선택한다. 그리고 집단의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명령 받으며 성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집단의 속하게 되는지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집단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압을 막아 준다는 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소수 집단이 대부분 서구 문화와 달리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 집단의 인정은 오히려 개인의 역차별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상호문화주의이다. 상호문화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상호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변화를 인정하며 문화 간의 상호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보편적인 도덕을 전제한다. 상호 문화주의는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지만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도덕 속에서 문화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소수자의 인권 보장, 개인의 자유, 평등, 박애의 보장이 문화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문화 간에는 우열 없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영미권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독일 및 프랑스 유럽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이름이다. 유럽은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이민 국가로서의 역사보다 더 길고 투쟁적인 국민국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중세 봉건주의와 귀족 중심주의를 탈출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교화 시켰고, 주체와 타자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그들은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보편적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국가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게 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염려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2차 대전 이후 대거 유입된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그들만의 특수한 지역을 형성하여 게토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것이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이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는 나의 문화부터 변하여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의 변화로 인해 다른 문화 속에도 이해가 일어나서 다시 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나선형의 운동이다. 카를로는 다양한 인종이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동적 변화의 개념이 바로 상호문화주의의 특징이다. 압달라 프렛세이는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결부해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이해하는 목표를 가진 이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동의 단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상반되는 논리를 제공해서 공통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미권의 다문화주의 반대론자들은 다문화주의가 국가 전체가 추구해야 할 통일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와 교육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관계의 세계화를 만드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 1998)

프랑스에서 상호문화주의는 언어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잘 이해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생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에 속하게 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의 암시적 분류 기준을 이해할 때 외국문화가 가지는 암시적인 문화를 그만큼 잘 객관화 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형성하고, 자기 문화 속에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상대적 개념을 발달시킴으로 다른 문화가 낯설어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정한다. 상호문화주의에서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함을 용이하게 하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으면서 외국문화와의 접촉을 일반화 한다.

상호문화주의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문화적 접변에 대한 연구를 차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인류학은 문화 간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시켜왔다. 문화 간 차이의 연구는 문화 간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규범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다양함과 동일성이라 요인 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주의와 체계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호학은 숨겨진 상징의 의미를 밝혀 줄 수 있고, 사회학과 사회 심리학은 사회 간의 역동적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역사학자는 이들 간의 상호관계와 문명 간의 기호체계의 연결성을 통시적으로 밝혀 줄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학문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공통점을 찾아내고 동시에 낯선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낯선 문화와 소통하는 인간을 양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마달레나 드 카를로,2011,pp.49-63)

상호문화주의에 관한 현재까지 교육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념적으로 상호문화주의는 고정관념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한다. 주체는 타자를 이해할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 관념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적으로 유용한 개념이다. 주체는 타자에 관한 경험을 통해 관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일반화해서 타자를 카테고리 화 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체는 새로운 유형의 타자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고정관념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특히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하다. 문제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이다. 고정관념은 매우 유연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낯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정관념은 수정되고 바뀌어져야 한다. 고정관념을 통해 과잉으로 일반화 시키게 되면, 다른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열을 나누는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연하고 가변적인 고정관념의 형성을 통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조금 더 바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체성의 개념은 상호문화주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의 개념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타자의 특징을 인식함으로써 타자와 다른 나를 인식하게 된다. 철학자들은 이때의 정체성이 동일성(memete)과 자기성(ipseite)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는 것 이라고 말한다. 동일성이란 X가 Z와는 반대로 Y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자기성은 시간적 연속성인데 같은 기원과 역사로 인해 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자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의식이 프랑스에게 정체성을 부과했다. 이렇게 문화 정체성은 타문화와의 관계와 그리고 역사적 자기의식으로 공유되는데 자신 문화가 다른 문화와 차이를 갖는 특수성과 그리고 역사적인 자기 인식을 학생들이 분명히 하게하

고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 외연의 폭을 확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 pp.101-143)

그렇다면 상호문화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연구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문학을 통한 학습 등이 있겠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학습은 본인이 속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탈피를 의미하는 방법이다.

공간을 설명해 보면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속한 공간적인 위치가 분명하다. 대부분 학교와 자신의 고장의 패턴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상황과 사람들이 있거나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패턴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안산에는 다문화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다문화적인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공간 속에 서 살고 있다고 하겠다. 간간히 외국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패턴을 벗어나게 하여, 다문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하면 그들의 생각은 달라진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다른 문화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산은 매우 특별한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교육은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학생들의 반복 패턴을 벗어나게 하고 다른 공간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들은 같은 지역에 다른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을 활용한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활용한 방법이 제시 될 수 있다. 한 가지 역사의 상반된 입장을 기술해 보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어 보면 임진왜란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입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입장과 중국 측의 입장을 비교해서 살펴 보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한 사건이 어떻게 공동체마다 다르게 사용되는지는 알아보는 방식을 통해 상호문화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해 볼 수 있다.

문학은 효과적으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 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나 프랭크의 일기와 같은 작품을 가지고 상호문화주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안나 프랭크는 나치정권 시기에 유대인으로 나치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시절에 관한 일기를 썼다. 학생들은 그녀의 일기를 읽으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종적 편견의 고통을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와 다른 그녀와 거리를 느끼면서 상대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시간, 공간 그리고 문학과 같은 교구들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대적인 감각을 기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다. 이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우

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 pp.71-97)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대학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쉽게 다문화로 가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받아 들여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상호문화적인 교육의 핵심은 도덕적인 기초 위해서 행해지는 상대적인 감각에 대한 교육이다. 우리는 대학에 있는 다문화적인 학생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같은 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들이 있다. 특히 기독교 학교는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들이 더더욱 분명할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인 것들 위해서 상대적인 감각이 길러지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낯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고정관념은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이의 문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감각이 대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양하고 상대적인 관점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결국 하나 된 총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인 공통적인 도덕 외에 개념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며 우리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소통이 대학 교육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은 다문화 적이어야 하며 다문화 교육이 대학은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다 학문적으로 우리는 상호문화주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

대학의 이념은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연구이며, 이 연구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의 존재와 이들 간의 상호 소통은 대학의 연구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관점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양한 문화로부터 파생된다. 다양한 문화는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는 기본이 되는 토대이다. 이미 세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는 이러한 이를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다문화 교육을 연구해 오고 있다. 대학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야 하며, 동시에 원래 대학의 이념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상호문화주의는 대학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안에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편적 도덕의 기초 위해서 이들 간의 상호소통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상호문

화주의는 대학의 다문화 교육 실현을 위한 적합한 이론이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은 이런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다. 기독교는 이미 분명히 주어진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틀이 있다. 동시에 성경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 된 몸의 형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동시에 이 다양함이 하나를 향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런 면에서 매우 성경적이다. 기독교 대학은 성경이 말하는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어야 하며 우리는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기독교 대학이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기독교 대학은 총체적 세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태. (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study korea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 직업 능력개발원.
- James, Banks. (1993),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Revei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19*, (3-49)
- James Banks. (2008), **다문화 교육 입문**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옮김),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Christine Bennet.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김진호, 옮김), 서울: 학지사
- Patrick Savidan. (2012),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이산호, 김휘택, 옮김), 서울: 경진출판사
- 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 **상호문화 이해하기** (장한업, 옮김), 서울: 한울
- Mike Higton. (2012), *A Theology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박선희, (2010, 9월 12일), 중대신문

(요약문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인 인구 이동 및 이주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고등 교육에서의 국제적 이동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Study Korea 이라는 국가 정책 이후 한국 고등 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빠르게 상승해서 2003년 12,314명에 불과했던 비율은 2013년 85,923명에 이른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과 달리 유학생을 위한 대학에서 정책이나 지원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유입과 변화에 관한 교육적 성찰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 내에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의 본질적인 이유와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관한 현상적 고찰에 앞서서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 대학의 이념부터 살펴보았다. 특히 근대 대학교육의 모델을 형성했던 베를린 대학의 설립과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해 보았다. 독일의 근대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함께 창립한 베를린 대학은 대학의 목적을 총체적 세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를린 대학의 설립자들은 온전한 연구를 대학의 가치로 생각해서 이전에 없었던 연구 대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동시에 그들은 온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상호소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소통을 하며 나아갈 때 온전하고 총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대학 연구의 핵심을 상호소통이라고 고려했다. 이들의 고찰을 통해서 대학의 이념을 살펴보면 대학은 총체적 세계에 대한 온전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며 이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면에서 대학 교육의 이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 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는 30~40년 전부터 다문화적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을 전개해 왔다. 그들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은 같다고 정의하고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실질적인 소외와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을 몰고 왔다.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평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교육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보편적인 평등성의 원칙이 실질적인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자유의 개념에 기대어서 그들은 실질적인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차이의 개념을 인정하고 다양한 집단 속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 쪽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식이 개선되

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문화교육학자들은 다문화 교육은 소수 문화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적 의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철학 변화를 위한 운동이라고 다문화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은 소수 문화의 평등을 향상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된 사상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한 국민 국가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소수의 문화에 속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집단에 의해서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의 인정은 국민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게 한다. 다문화교육 또한 다문화주의를 사상적 뿌리로 하고 있어서 어떤 교육 목표 적 지향점을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행해야 할지를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한다.

이런 이유로 대학에서의 합당한 다문화교육의 이론으로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한다. 상호문화주의 또한 다문화주의와 맥을 같이하지만 다문화주의의 한계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위한 이론이다. 상호문화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기존에 영미권에서 사용했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구성원의 상호소통을 강조한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 밑바탕에 있는 보편적 도덕성이 상호소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도덕성이라는 기초 위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나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문화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문화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개개인은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변화에 관해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런 상대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는 주체성 형성이나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주체성을 바르게 형성될 때 오히려 다른 문화의 분류체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낯선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감각을 익혀서 낯설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지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육적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고정관념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호문화주의 교육은 대학의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보편적인 도덕성 위해서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는 보편적인 도덕성이 이미 주어져 있으며 상호소통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하나 됨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의 일치한다. 기독교 대학은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고 바른 대학 교육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